



Brief

발행일_ 2014. 12.30 발행처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 정기택

보 건 산 업 브 리 프 Vol. 157

통계분석 | 정책제도 | 동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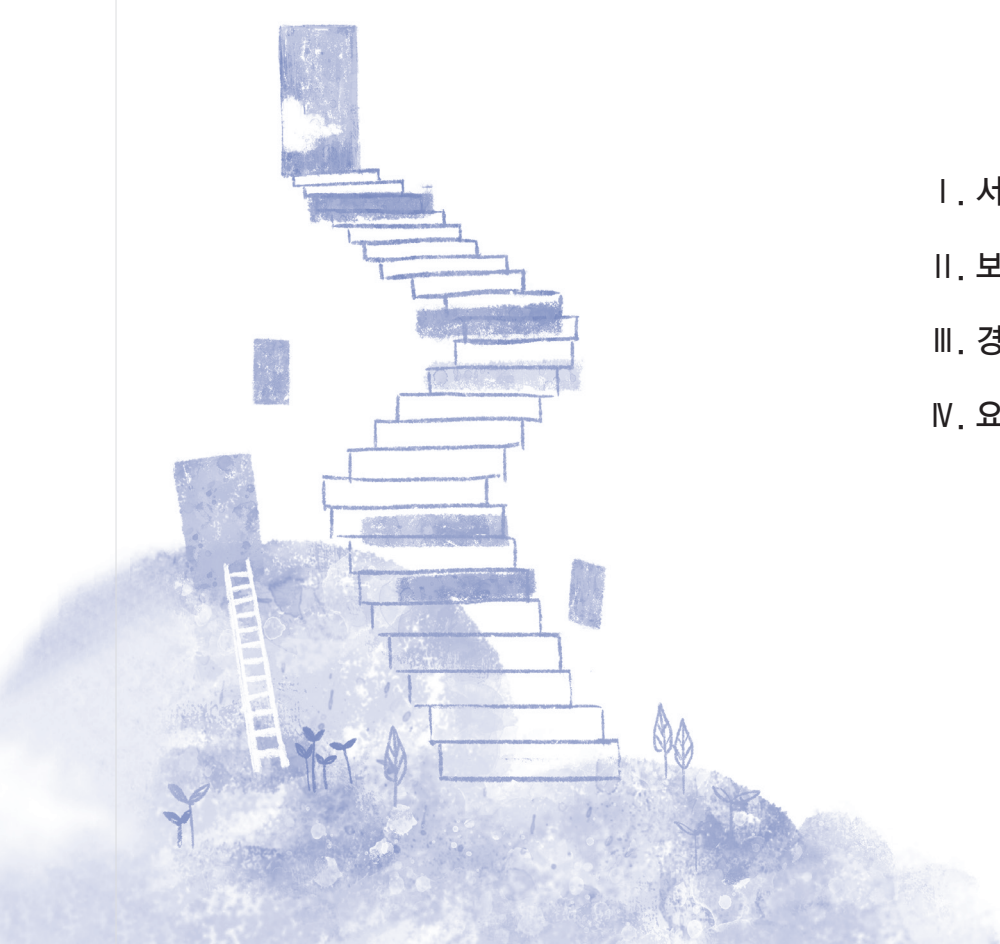
Future Insight

●● 보건의료산업의 수급구조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국민건강경제정책실 정책기획팀
백 승 민

Contents

- I. 서론
- II. 보건의료산업의 수급구조
- III. 경제적 파급효과
- IV. 요약 및 시사점



I 서 론 ...

1) 배경 및 필요성

- ◎ 최근 보건의료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음
 - 고령화 시대의 도래, 소득수준의 증가 및 건강중심 트렌드의 확산 등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미래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도 국정과제 내 보건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포함¹⁾시켜 경제부흥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 이와 같이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최근 몇 년간 양적·질적 측면에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의 수급 및 투입·산출 등 산업 간 연관구조에 중점을 두고 2010-2012년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양적 측면의 변화를 분석함
 - 단, 취업/노동유발계수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10년도 기준 161부문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함

2) 보건의료산업의 정의 및 범위

- ◎ 보건의료산업은 의료서비스산업,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을 통칭하며, 범위가 넓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님
- ◎ 산업연관표 상에서 보건의료산업은 161부문 기준 의료 및 보건(154), 의약품(42), 의료 및 측정기기(90)로, 384부문 기준 의료 및 보건(365-367), 의약품(122), 의료용 기기(243)로 분류함
 - 2010년 실측표 이후 384부문 산업연관표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2010-2012년 시계열 관측을 위해 통합소분류(161부문)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석의 세분화가 어려움
 - 특히 의료 및 측정기기 부문에서 측정기기(측정 및 분석기,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가 통합되어 의료기기산업을 세밀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 한편 보건의료산업의 산업구조와 더불어 거시적 국가경제 측면에서 동 산업을 이해하고자 전산업을 총 5개 부문(1차 산업, 제조업, SOC, 서비스업 및 보건산업)으로 분류하여 부문 간 비교·분석을 수행함

1)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보건산업을 내수·복제품 위주에서 수출·첨단기술 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강 증진·웰빙 등 친고령산업 및 항노화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청와대

〈표 1〉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비교

구분		산업연관표 상 분류		번호	
보건 산업	의료서비스산업	161부문	의료 및 보건	154	
		384부문	의료 및 보건(국공립 + 비영리 + 산업)	365-367	
	의약품산업	161부문	의약품	42	
		384부문	의약품	122	
	의료기기산업	161부문	의료 및 측정기기	90	
		384부문	의료용 기기	243	
	1차 산업		161부문	1 - 12	
			384부문	1 - 34	
제조업		161부문	13 - 100		
		384부문	35 - 273		
SOC		161부문	101 - 114		
		384부문	274 - 301		
서비스업		161부문	115 - 161		
		384부문	302 - 384		

- 파급효과 분석 등에는 2010년 산업연관표 384부문(기초가격) 실측표를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 보건의료산업 산업구조 분석에서는 2010년 표와 더불어 2012년 산업연관표 161부문(기초가격)을 사용함

II 보건의료산업의 수급구조 ...

1) 보건의료산업의 수요·공급구조

- ◎ 2010-2012년 사이 산업연관표 상에 집계된 전산업 국내총산출액은 동 기간 3,048조 원에서 3,472조 원으로 연간 6.7%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GDP는 1,257조 원에서 1,378조 원으로 연간 4.7% 증가율을 기록함²⁾
- ◎ 보건의료산업의 총공급(=총수요)액은 2010년 112.4조 원에서 2012년 130.4조 원으로 연간 7.7%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 공급과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총산출과 국내수요 또한 연간 7% 이상 성장하였음
 - 보건의료산업의 국내총산출액은 2010년 96.6조 원에서 2012년 111.4조 원으로 연간 7.4% 증가해, 동 기간 전산업 총산출액 증가율(6.7%)을 0.7%p 상회함

(표 2) 보건의료산업 총수급구조(2010-2012)

(단위: 조 원)

구분	공급		총수요 = 총공급	국내수요			수출
	국내총산출	수입		계	중간수요	최종수요	
2010	96.6	15.7	112.4	106.7	33.4	73.3	5.6
2011	105.5	17.2	122.7	116.0	37.0	79.1	6.7
2012	111.4	19.0	130.4	122.4	39.9	82.5	8.0
CAGR(%)	7.4	9.8	7.7	7.1	9.2	6.1	19.1

- ◎ 보건의료산업 내 각 산업별 총산출액의 연간 증가율은 해당 산업이 속한 산업군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됨
 - 의료서비스산업의 총산출액은 연간 7.3% 증가해 서비스업의 증가율(5.7%)을 앞섰으며, 의료 및 측정기기 부문 또한 연간 12.8% 증가해 제조업의 증가율(8.2%)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음
 - 다만 의약품 부문은 산업연관표 상에 집계된 총산출액 증가율이 각각 2.1%에 그쳐 제조업 평균에 비해 약 6%p 낮은 성장을 기록함
- ◎ 한편 2010-2012년 사이 보건의료산업의 부가가치는 46.3조 원에서 52.7조 원으로 연간 6.7% 증가해 GDP 증가율(4.7%)을 2.0%p 상회하는 등 부가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보건산업의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0년 4.04%에서 2012년 4.21%로 약 0.17%p 상승하였음
 - 의료 및 보건 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6.5%로 는 서비스업 부문 부가가치 증가율(4.7%)을 1.8%p 상회하였고, 의료 및 측정기기 부문의 부가가치는 연간 12.0% 증가해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5.0%)을 대폭 상회함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표 3〉 보건의료산업 총부가가치 변동(2010-2012)

(단위: 조 원)

구분	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의료산업			
			의료 및 보건	의약품	의료 및 측정기기	
2010	687.7	342.8	46.3	37.1	4.9	4.4
2011	724.5	370.2	49.5	39.5	5.0	5.0
2012	754.4	377.6	52.7	42.1	5.2	5.5
CAGR(%)	4.73	4.96	6.71	6.54	3.02	12.03

- 한편 보건의료산업은 최종수요/총수요 비율이 75%를 상회하는 최종수요의 비중이 높은 산업임
 - 최종수요는 크게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이상 국내최종수요) 및 수출(해외최종수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산업보다 의료서비스산업의 최종수요 의존 비중이 높음³⁾
 - 특히 소비(민간소비지출 + 정부소비지출) 항목의 비중이 최종수요의 대부분(약 80%)을 차지하고 있어⁴⁾ 보건의료산업은 수요의 대부분을 주로 민간소비에 의존함을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산업 간의 구조적 연관관계보다 최종소비자의 선택이 산업의 생산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
- 최근 3년 간 수출 증가율(19.1%)이 수입 증가율(9.8%)을 대폭 상회하고 있어 보건의료산업의 수출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그러나 규모 측면에서 수입액이 수출액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10.1조 원에서 2012년 △11.0조 원 수준으로 오히려 소폭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의 양적 확대 외에도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중심의 수출 구조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표 4〉 보건의료산업 최종수요 구성항목 변동(2010-2012)

(단위: 조 원 (%))

구분	국내최종수요			수출	최종수요 계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투자		
2010	23.4	42.7	7.2	5.6	79.0
2011	25.0	45.9	8.1	6.7	85.7
2012	26.3	48.2	8.0	8.0	90.5
CAGR(%)	6.0	6.2	5.5	19.1	7.1

주 1: 투자 = 민간고정자본형성 + 정부고정자본형성 + 재고증감 + 귀중품순취득

주 2: 정부소비지출은 전액 의료 및 보건 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민간고정자본형성 + 정부고정자본형성은 전액 의료 및 측정기기 부문에서 발생

3) 최종수요/총수요 비율 : 의료서비스(92.0%), 의약품(18.6%), 의료기기(62.0%), 전체(75.2%)

4) 의료 및 보건 부문의 경우 정부소비지출이 매우 높는데,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건강보험 지급액을 정부소비지출로 처리하였기 때문(2010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4)



2) 산업별 최종수요(민간소비 및 수출입)의 변화

- 의료 및 보건 부문은 건강보험 지급액을 정부소비지출에 반영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지급액이 민간소비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최종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재의 성격이 매우 강함

 - 특징적으로 비교역재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문이 최근 3년 간 19.1%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인 의료관광부문의 성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됨⁵⁾
 -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고품질화와 더불어 항노화(anti-aging), 웰니스(wellness) 서비스 등을 연계한 의료관광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성장이 기대됨

- 의약품산업은 제품의 대부분이 의료서비스 부문으로 투입되어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특성 상대적으로 총산출액 대비 최종수요의 비중이 크지 않음

 - 다만 수입의 비중이 수출에 비해 3-4배 높은데 이는 국내 제약산업의 특징인 제네릭·내수 위주 산업구조로 글로벌 기업이 부재하고 블록버스터가 없어 수출경쟁력이 매우 약함을 반영함

- 의료 및 측정기기 부문 또한 의약품산업과 유사하게 수입 대비 수출의 비중이 2배를 상회하며, 이는 낮은 기술력과 산업의 영세성에 기인함

 - 그러나 수출액이 2010년 4.07조 원에서 2012년 6.11조 원으로 연평균 22.6% 증가하여, 총산출액 증가율(12.8%)을 크게 상회하였고 동 기간 총산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30%에서 36%로 상승하여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 발전하고 있음
 - 높은 수출 비중과 급격한 수출 증가율에 비추어 볼 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제품 위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됨

〈표 5〉 산업별 민간소비지출, 수출 변동(2010-2012)

(단위: 조 원)

산업 구분	년도	민간소비지출*	수출 (수입)	국내산출
의료 및 보건	2010	21.20 (42.7)	0.07 (0.18)	69.40
	2011	22.64 (45.9)	0.09 (0.19)	75.19
	2012	23.88 (48.2)	0.10 (0.26)	79.93
	CAGR	6.1%	19.1% (21.0%)	7.3%
의약품	2010	1.76	1.50 (5.18)	13.79
	2011	1.90	1.55 (5.59)	13.99
	2012	1.95	1.78 (6.11)	14.37
	CAGR	5.5%	9.1% (8.6%)	2.1%
의료 및 측정기기	2010	0.48	4.07 (10.37)	13.45
	2011	0.50	5.02 (11.41)	16.32
	2012	0.48	6.11 (12.60)	17.11
	CAGR	0.6%	22.6% (10.2%)	12.8%

* 괄호 안은 정부소비지출

5) KHISS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총 진료수입은 2010년 547억 원에서 2012년 2,673억 원으로 연평균 121%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진료비 또한 같은 기간 131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상승해 외국인들의 서비스 수요가 보다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로 변화 중임을 짐작할 수 있음

3) 산업별 중간투입·수요구조 분석

-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각 보건의료산업의 비용구조(중간투입구조) 및 수요구조를 통해 전·후방 산업구조를 정량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음

〈표 6〉 의료 및 보건 부문 투입·수요구조(2012)

(단위: 조 원, %)

순위	투입구조			수요구조		
	산업	금액	비중	산업	금액	비중
1	의약품	13.5	38.3	도소매 서비스	2.0	24.5
2	도소매 서비스	4.6	12.9	교육 서비스	0.5	6.0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	1.9	5.3	의료 및 보건	0.5	5.9
4	의료 및 측정기기	1.8	5.0	공공행정 및 국방	0.4	5.1
5	수리 서비스	1.1	3.1	비주거용 건물	0.4	5.1

- 의료서비스 부문 투입구조는 의약품, 도소매서비스 순으로 비중이 크고, 수요구조에서는 도소매서비스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의약품과 도소매서비스에서 의료서비스 부문으로 투입되는 금액의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특히 의약품 투입액은 전체 대비 38.3%에 달하여 중간재 의약품의 절대적인 수요자가 의료서비스 부문임을 알 수 있음
- 한편 의료서비스 부문의 투입·수요구조에서 도소매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이는 의료 및 보건 부문에 약국의 조제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즉, 대형 도소매 의약품 업체의 마진율 등이 고려되어 있어 나타나는 효과로 볼 수 있음

〈표 7〉 의약품 부문 투입·수요구조(2012)

(단위: 조 원, %)

순위	투입구조			수요구조		
	산업	금액	비중	산업	금액	비중
1	의약품	1.9	20.7	의료 및 보건	13.5	80.6
2	도소매 서비스	1.8	20.1	의약품	1.9	11.3
3	기초유기 화학물질	15	16.1	연구개발	0.3	1.6
4	기타작물	0.3	3.7	사료	0.2	1.4
5	종이제품	0.3	3.2	공공행정 및 국방	0.1	0.6



- ◎ 의약품 부문 후방산업 투입액 순위는 의약품, 도소매서비스, 기초유기화학물질, 기타작물, 종이제품 순임
 - 의약품의 특성상 기초유기화학물질과 원료 의약품의 경우 타 의약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관계로 제약기업 간의 중간 거래가 많음
- ◎ 의약품을 중간재로서 많이 소비하는 부문은 의료 및 보건, 의약품, 연구개발, 사료, 공공행정 및 국방 순임
 - 의료서비스 부문은 의약품의 절대적인 소비자로 중간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부문 간에는 투입구조와 유사하게 부문 내 중간거래가 많다고 볼 수 있음

〈표 8〉 의료용 기기 부문 투입·수요구조(2012)

(단위: 조 원, %)

순위	투입구조			수요구조		
	산업	금액	비중	산업	금액	비중
1	의료용 기기	0.4	13.1	의료 및 보건	1.4	54.7
2	도매서비스	0.2	8.3	의료용 기기	0.4	14.0
3	금속압형 제품	0.2	6.2	사회복지 서비스	0.2	7.6
4	개별소자	0.1	4.7	교육서비스	0.1	3.6
5	집적회로	0.1	4.5	보관 및 창고서비스	0.05	1.8

주1: 의료 및 보건 = 국공립 + 비영리 + 산업

주2: 의료 및 측정기기 부문은 161부문(2012)으로 분석 시에 측정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의료기기산업의 정확한 투입·수요구조가 왜곡되므로, 384부문(2010)을 활용해 의료용 기기 부문의 투입·수요 구조를 분석함

- ◎ 의료기기산업으로 투입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은 액수 기준 의료기기와 도매서비스 그리고 금속압형 순임
 - 의료기기 또한 의약품과 유사하게 생산된 제품이 다른 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기산업 간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음
- ◎ 수요 측면에서 의료기기를 중간재로 소비하는 액수는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요가 매우 높고 앞서 언급한 특성대로 의료기기 기업 간의 중간거래가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의료 및 보건 부문에 대한 수요 비중(54.7%)이 의약품보다 훨씬 낮은 것은 의료 및 측정기기 중 많은 부분이 고정자본형성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임

- ◎ 종합하면,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기기산업은 각 산업간 연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간거래에 있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특히 의료서비스산업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산업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부문으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는 의약품, 의료기기산업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Ⅲ 경제적 파급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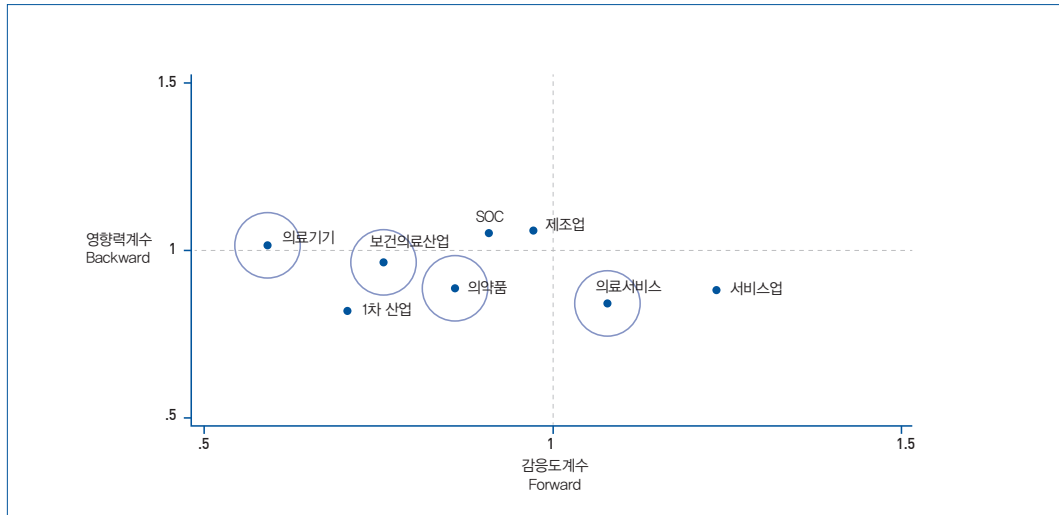
- ◎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산업 간 투입·산출(수요) 행렬을 바탕으로 특정 산업의 최종수요 증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음
 - 2010년 산업연관표(384부문)를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의료 및 보건(365-367), 의약품(122), 의료용 기기(243)의 생산·부가가치·고용의 유발효과를 계측함
 - 또한 국가 전반 산업구조 내에서 보건산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384부문 기준 전산업을 1차 산업(1-34), 제조업(35-273), SOC(274-301), 서비스업(302-384)로 각각 분류하고 이 중 보건의료산업을 제외하여 분석에 활용함([표 1] 참조)
- ◎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내며, 생산유발계수행렬을 이용하여 각 산업 간의 상호의존도 관계의 정도를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임
 - * 해당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
 - **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해당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

〈표 9〉 생산유발, 영향력, 감응도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비교(2010, 384부문)

구분	생산유발계수	영향력계수 (후방연쇄효과)	감응도계수 (전방연쇄효과)	부가가치 유발계수
1차 산업	1.63	0.82	0.71	0.78
제조업	2.10	1.06	0.97	0.57
SOC	2.09	1.05	0.91	0.69
서비스업	1.75	0.88	1.23	0.81
보건의료산업	1.81	0.91	0.84	0.70
의료서비스	1.67	0.84	1.08	0.80
의약품	1.76	0.89	0.86	0.64
의료기기	2.01	1.01	0.59	0.65

주 : 산업군 별 생산유발계수는 산업군 내 각 산업 별 생산유발계수의 산출평균

- 보건의료산업은 후방연쇄효과가 1차 산업과 서비스업보다 높지만 제조업과 SOC보다 낮고 전방연쇄효과는 1차 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하여 타 산업의 수요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 특히 의료서비스 부분의 낮은 후방연쇄효과와 높은 전방연쇄효과는 의료서비스가 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각 산업에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직·간접적으로 높은 것을 반영함



[그림 1] 산업별 영향력·감응도계수 비교(2010)

- 보건의료산업 전반 부가가치유발계수 평균은 산업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산업군의 성격이 혼재된 관계로 서비스업, 1차 산업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제조업, SOC 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의약품, 의료기기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0.64-0.69)는 제조업 평균인 0.57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음

<표 10>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비교(2010, 161부문)

구분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전산업	13.51	8.64
1차 산업	25.33	7.53
제조업	9.67	6.14
SOC	11.69	8.42
서비스업	18.22	13.65
보건의료산업	10.76	8.36
의료 및 보건	14.18	11.81
의약품	8.27	5.92
의료 및 측정기기	9.84	7.36

주: 산업군 별 취업/고용유발계수는 산업군 내 각 산업 별 취업/고용유발계수의 산술평균

- ◎ 보건의료산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10.76명, 8.36명으로 전산업 평균(각 13.51명, 8.64명)보다 다소 낮은 편임

*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0억 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의미
- ◎ 취업유발계수*는 의료서비스 부문의 경우 14.18명으로 서비스업의 18.22명에 비해 낮지만 전산업 유발계수인 13.51명을 소폭 상회하고, 의약품 또한 8.27명으로 제조업 평균인 9.67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노동량에 포함하여 해당 산업에서 10억 원의 최종수요 증가 시 해당 부문을 포함한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 노동량을 의미함

 - 다만 의료 및 측정기기는 9.84명으로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여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으로 나타남
- ◎ 고용유발계수는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노동량에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해당 산업에서 10억 원의 최종수요 증가 시 해당 부문을 포함한 전산업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 노동량을 의미함

 - 의료서비스, 의약품의 경우 각각 11.81명, 5.92명으로 서비스업, 제조업 평균인 13.65명, 6.14명에 비해 낮아 같은 성격의 산업군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의료 및 측정기기, 비누 및 화장품의 경우 각각 7.36명, 7.01명으로 제조업 평균인 6.14명을 상회하여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나타남



IV 요약 및 시사점 ...

1) 요약

- ◎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은 총산출액과 부가가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파악됨
 - 국가경제에서 보건의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내외 수준으로 아직 낮지만, 최근 3년간 총산출 및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을 상회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의약품산업의 국내총산출 및 부가가치는 증가율이 제조업 평균보다 낮아 다소 정체된 것으로 판단됨

- ◎ 보건의료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19.1%로 수입 증가율인 9.8%보다 훨씬 높았으나 무역수지가 △10~11조 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근본적인 무역수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부문의 수출 증가율이 매우 높고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투입·수요구조 측면에서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 생산량이 의료서비스의 최종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의료서비스는 최종수요(민간소비 + 정부소비)에 많이 의존하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는 의약품·의료기기산업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됨

- ◎ 보건의료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직·간접 산업연관 구조를 통해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산업은 동종 산업군내에서 다른 부문보다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생산유발계수는 동종 산업군의 평균에 다소 미달하는데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우 핵심 원자재의 높은 수입의존적 구조 때문에 국내에서의 생산 우회도가 낮는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2) 정책적 시사점

- ◎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은 최근 수요·공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나타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경제성장,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구조적 트렌드가 보건의료산업의 수요를 꾸준히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성장동력이 시급한 우리나라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판단됨
 - 그러나 수출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만성적자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이는 수출경쟁력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바를 의미함

- ◎ 그 동안 우리나라 보건산업은 낮은 기술력과 비좁은 내수시장 내의 과당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독점적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음

 - 이에 세계 시장에서 국산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낮고 수출 노하우 부재로 까다로운 선진국 규제 절차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력이 낮은 상황임

- ◎ 그러나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반도체 등과 같이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최근 발표된 한·중 FTA 타결 등 무역자유화로 인해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각종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이 사라져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의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⁶⁾

- ◎ 즉, 보건의료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제품을 위주로 하는 장기적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

 - 이를 위해서 첫째, 보건의료 분야의 기초 및 응용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 둘째, R&D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의 성공적 상업화를 위해 기초과학의 기술사업화에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련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기업의 관점에서 R&D·생산 외에도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독자적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이미지 홍보 등을 통해 제품 외에도 해외환자 유치 등 서비스 수출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한편 신형시장 및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는 적정기술 등을 바탕으로 보급형 제품을 통해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수출전략이 필요함

 - 대규모 R&D, 임상시험 절차나 생산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제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이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 확대와 더불어 창업과 일자리 및 혁신창출을 유도할 수 있음

- ◎ 결론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위주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유인 체계가 정책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첨단기술 R&D 확대를 위한 세계 감면, G2G 협상을 통한 수출 지원, 혁신적 기반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유인 제공 등 다양한 각도에서 효과적인 유인체계 설계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6) 한국경제신문, 빛장 열리는 중국시장 - 업종별 기상도, 2014.11.11



■ 참고문헌

- ◎ 한국은행(2007),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 ◎ 한국은행(2014), “2010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 ◎ 관계부처 합동(2014),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 ◎ 보건복지부(2013),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013-2017)”
- ◎ Miller and Blair(2009), “Input-Output Analysis(2nd edition)”, Cambridge.



- ◎ 집필자 : 국민건강경제정책실 정책기획팀 백승민 ◎ 문의 : Tel. 043-713-8851
-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HISS
보건산업통계시스템
www.khiss.go.kr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Center for Health Industry Information & Statistics